

# 일제강점기 부산발행 일본어신문에 대하여 - 『조선시보』를 중심으로 -

김 유 경\*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조선시보』의 개관 및 현황
- III. 『조선시보』의 자료적 가치
- IV. 맺음말

## I. 머리말

부산지역에 근대적 언론매체가 등장한 것은 19세기말 일본인들에 의해서이다.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 부산포가 개항된 이후 용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거류지에 일본인들이 건너오기 시작하여 개항 전 80여 명에 불과했던 일본인 거류자는 1894년경에 이미 1만 5천여 명에 이르렀다. 일본인 거류지를 근거로 한 일본인 사회가 형성되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가 등장

---

\*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 pnukimyk@pusan.ac.kr

했는데 그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881년에 창간된 『조선신보(朝鮮新報)』이다. 이후 1892년에 『조선시보(朝鮮時報)』, 1907년에 『부산일보(釜山日報)』 등 거류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신문들이 계속 등장하였다.

부산에서 발행된 이들 신문 중 먼저 『조선신보』는 부산의 일본 상법 회의소에서 발행한 것으로 현재 5호(1882.3.5.)에서 12호(1882.5.15.)까지가 동경대학 메이지신문잡지문고(明治新聞雜誌文庫)에 원지(原紙)가 보존되어 있으며 창간호는 1881년 12월 10일에 순간(旬間)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1)</sup> 다음으로 『조선시보』는 1892년 7월 11일 창간된 일본어 신문으로 부산에 본사를 둔 일간 신문이다. 창간 당시의 제호는 『부산상황(釜山商況)』으로 상업 및 경제 관련보도를 목적으로 창간되었으며, 『동아무역신문(東亞貿易新聞)』으로 제호를 바꾸었으나 경영난으로 잠시 휴간되었다가 1894년에 『조선시보』라는 이름으로 재 창립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산일보』는 1905년 1월에 『조선일보(朝鮮日報)』로 창간되어 같은 해 11월 『조선시사신보(朝鮮時事新報)』로 개제되었다가 1907년 10월 『부산일보』로 개제되었고 1941년 이후 광복 때까지 경남 지방의 유일한 신문으로 남게 되었다.

『조선신보』 『조선시보』 『부산일보』는 모두 일본인에 의해 일본어로 발행된 신문으로 부산에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조선신보』에 대한 연구로는 채백<sup>2)</sup>이 있으며, 『부산일보』는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에서 기사 목록화 사업<sup>3)</sup>과 더불어 일련의 연구를 진행한 것에 비해<sup>4)</sup> 『조선시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1) 채백, 『朝鮮新報에 관한 一研究』, 『신문학보』 26, 1991, 355쪽.

2) 채백, 위의 논문, 345~374쪽; 『부산언론사 연구』, 산지니, 2012, 92~94쪽·211~217쪽.

3) 한국연구재단>기초학문자료센터>토대연구DB>일제시기 『부산일보』 기사목록 및 기사 검색을 위한 DB 구축

4) 연구결과의 일부가 『부산의 도시 형성과 일본인들』(선인, 2008), 『일제강점하 부산의 지역개발과 도시문화』(선인, 2009) 등에 반영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일제강점기 연구의 틀을 지방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 발행된 종합 상업지로서 부산의 지역학적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선시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II. 『조선시보』의 개관 및 현황

지금까지 『조선시보』를 연구 자료로 활용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나 일제강점기 신문자료로서 창간과정 및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기에<sup>5)</sup> 그 동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조선시보』에 대해 개관해 보고자 한다.

『조선시보』발행의 계기를 만든 인물은 아다치 겐조(安達謙藏)<sup>6)</sup>이다. 아다치는 구마모토(熊本) 국권당(國權黨)<sup>7)</sup>의 기관지 『규슈일일신보(九州日日新報)』의 중군특과원으로 청일전쟁을 취재한 후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조선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부산을 지나던 중 당시 부산 주재 일

5) 정진석, 『인문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7~28쪽. 채백, 앞의 책, 92~94쪽·211~217쪽. 李相哲, 『朝鮮における日本人經營新聞の歴史』, 角川學芸出版, 2009, 54~92쪽.

6) 아다치 겐조(安達謙藏)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실행 멤버로 1894년 부산에서 『조선시보』를 발간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 1895년 2월 『한성신보』를 발간하였다. 을미사변 이후인 1902년에는 제국당으로 출마해 중의원 의원이 된 뒤 줄곧 당선포 14선 의원이 되었고 1925년 가토 내각에서는 체신상(遞信相), 뒤에 내상(內相)도 역임하였다. 1932년엔 국민동맹회를 결성해 총재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한성신보』는 일본 외무성의 자금으로 운영되던 일본 공사관의 기관지로, 명성황후 시해범 중 상당수가 당시 이 신문사의 기자이거나 신문사에서 숙박하고 있었으며 1906년 7월 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京城日報)』에 통합되었다.

7) 채백(2012)에 따르면 구마모토 국권당은 일본의 국위 신장, 국권 확장을 내건 국수주의적 단체로 사원 대부분이 구마모토현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타 지역 사람은 신문사 주필과 같은 간부가 될 수 없었다.

본 영사 무로다 요시아야(室田義文)에게 신문발간을 의뢰받았다. 아다치는 규슈일일신문의 멤버들을 영입하고 경영난으로 인해 휴간에 들어간 『동아무역신문(東亞貿易新聞)』을 인수하여 1894년 11월 21일 변천정(辨天町, 현 부산 광복동 부근)에서 인쇄 체제 1면 14단, 활자 7포인트, 석간 6면 형태의 일간지를 발행하게 되었다.

원래 『동아무역신문』의 전신(前身)은 경제 정보를 보도할 목적으로 1892년 7월 창간된 『부산상황(釜山商況)』이며, 1894년 7월 『동아무역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었으나 오래가지 못하였고, 이것을 다시 『조선시보』로 이름을 바꾸어 1894년 11월 발간하게 된 것이다. 창간호가 나온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아다치는 『한성신보(漢城新報)』 발행을 위해 서울로 떠났고 그 뒤를 이어 구마모토 출신의 다카키 스에쿠마(高木末熊)가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1919년 4월 10일에는 자본금 25만 엔의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운영체제를 정비하였다. 이 때 사옥을 개축하고 사원을 늘려 1면 16자 11행 10단, 활자 9포인트 6면의 일간신문이 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회사의 조직변경을 단행하였다.

『조선시보』는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일대를 중심으로 조선 전역, 그리고 일본과 만주 지역에까지 배포되었다. 지사와 지국이 설치된 지역은 국내에서는 경성, 인천, 대구, 원산, 구포, 삼랑진, 진주, 동래, 목지도, 함흥, 마산, 진해, 통영, 울산, 방어진, 밀양, 경주, 부산진, 하동, 여수, 김천, 포항, 삼천포, 상주, 신의주, 감포 등이었고 만주의 안동현(安東縣)과 일본의 도쿄, 오사카에도 지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초기 발행 부수를 보면 『조선시보』가 『부산일보』보다 조선이나 일본에서 더 많이 배포되었지만 1910년대부터 그 격차가 대폭 줄어 비슷해졌다. 특히 일본에 배포되는 부수는 『조선시보』가 큰 차이로 앞섰지만

조선 내의 배포는 『부산일보』가 『조선시보』보다 늘어 후발주자인 『부산일보』에 밀리게 되었다.<sup>8)</sup> 이후 실업 신문을 표방하던 경쟁지 『부산일보』가 날로 확장하면서 『조선시보』는 상대적으로 점차 위축되었고 결국은 일도일지제(一道一誌制)라는 총독부의 언론 통합정책에 의해 1941년 『부산일보』에 통합되면서 폐간되었다.

『조선시보』의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910년 8월 5일 시국 문제에 관한 기사로 발행정지를 당하였고<sup>9)</sup>, 1911년 1월 19일자 4271호 신문이 치안 방해 혐의로 총독부령 제12호 신문지규칙 제10조 및 12조에 의해 해당 일자 신문의 발매 및 반포를 금지당하고 발행 정지처분을 받기도<sup>10)</sup> 한 반면에 러일전쟁 이후 신문사의 논공행상에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의 조선신보사, 부산의 조선시사신보사와 함께 금잔을 하사받기도<sup>11)</sup> 하였다.

그리고 조선인을 모욕, 무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여 국내의 언론이나 각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는 필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였다.<sup>12)</sup> 이는

8) 채백, 앞의 책, 94~97쪽.

-1908년 부산 지역 신문의 보급 상황

신문	일본	한국	청	기타	합계
조선시보	12,190	42,550	295	390	55,425
부산일보	3,232	30,525	1,624	-	35,381

-1910년 부산 지역 신문의 월 발행부수 현황

신문명	발행지	기타 조선 내	일본	대만	청	합계	1일평균
부산일보	33,073	22,561	4,356	25	773	60,788	2,400
조선시보	32,414	11,250	16,571	778	98	61,111	2,412

9)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10년 8월 6일자에 “釜山에서 發行하는 釜山日報及朝鮮時報는 時局問題에 關한 記事를 因하여 發行을 停止하였더라”는 기사가 있다.

10)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2월 3일자에 “明治44年1月19日發行朝鮮時報第4271號ハ 治安ヲ妨害スルモノト認メ統監府令第12號新聞紙規則第10條及第12條ニ依リ其ノ 發賣頒布ヲ禁止シ之ヲ差押へ且同新聞ノ發行ヲ停止ス”라는 기사가 있다.

11) 『경성신보』 1911년 6월 29일, 김태현, 『광복 이전 일본인 경영 신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43쪽 재인용

12) 1925년 9월 6일자 지면에서 ‘조선 녀학생은 음탕하야 실로 처녀다운 녀학생은 이분

『조선시보』가 일본의 국위신장, 국권확장을 내건 국수주의적 단체인 구마모토 국권당이 중심이 되어 발행한 신문이었기 때문에 신문사 구성원들의 사상적 배경이나 신문의 편집 방침 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더불어 이러한 필화 사건의 내면에는 재조선 일본인들이 본국의 일본인에 대해 갖는 열등감을 조선인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보도를 통해 조선인에 대한 우월감으로 극복하도록<sup>13)</sup>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시보』에서는 출판 사업도 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확인되는 것은 1876년 『도한자필휴(渡韓者必携)』<sup>14)</sup>라는 제목의 책을 발행한 기록이 있다. 이 책은 조선에 체류하는 일본인들이 수호조약은 물론 사업에 필요한 규칙과 거류지에서 지켜야 할 생활상의 규칙 그리고 국제 조약 등을 소개한 것으로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원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논자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시보』에서는 1915년 『제1회 경상남도물산공진회 사무보고(第一回慶尙南道物産共進會事務報告)』<sup>15)</sup>를 발행하였으며, 당시 합자회사(合資會社) 조선시보사의 대표자는 이데 타스에오(出田末雄)로 되어 있다. 중요한 행사인 물산공진회에 대한 보고서를 『부산일보』가 아닌 『조선시보』에서 발간한 것에서 당시 부산지역에서의 『조선시보』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시보』의 현재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보』원본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고문헌실에 소장되어 있다.

지 일도 못 된다' 등등의 내용을 보도하였고, 1930년 7월 3일자에는 '조선 부인 특유의 잔인성' 운운하는 기사를 실어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13) 박용규, 『일제하 지방신문의 현실과 역할』, 『韓國言論學報』50권 6호, 2006, 51쪽

14)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ld=2&itemldl>(검색일: 2017. 6. 6)

高木末熊編 日本活字本 1897年(明治30年) 316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5) <http://www.nl.go.kr.8080/viewer/viewer.jsp>(검색일: 2017.6.6.)

朝鮮總督府慶尙南道編 日本活字本 1815年(大正4年) 45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	월	일 (공란은 결호나 누락본, 사선은 해당일 없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935	1	20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2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5	/		
	7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6	4	4	4	
	8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11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	
	12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1936	1	16	4			4		4	4	4	4	4	6	4	4	4	4	4	4	4	4	4	4	6	4	4	4	4	4	6	4	4	4	
	2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		
	3	5	4	4	4	4	4	4	4	4	4	6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6	4	4	4	4	4	4	4	/	
	5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6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
	11	6	4	6	4	6	6	6	6	4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4	4	6	6	6	6	4	/
12	6	6	6	6	6	6	4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4	8	4	4	4		
1937	3	4	6	6	6	6	6	6	4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4		
	4	6	6	6	4	4	6	6	6	6	6	8	4	6	6	6	6	6	6	6	6	4	6	6	6	6	6	6	4	6	4	6	4	/
	8	6	3	6	6	6	6	6	6	4	6	6	6	6	7	4	6	6	6	6	7	6	4	6		2		5	5	4				
	9	6	6	6	6	6	4	6	6	6	6		6	4	6	6	6	6	8	4	6	6	6	6		6	6	4	6	6	6	4	/	
	10	6	4	6	4	6	6	6		4	6	4		6	6	6	6	6	4	6	6	6	6	6	6	6	6	6	6	6	6	4		
	11	5	6	5	4	6	6	6	4	6	6	6	6	6	6	6	4	6	6	6	6	6	4	6		5	7	6	6	4	4	/		
	12	6	6	6	6	6	4	6	6	6	6	6	6	6	4	6	6	6	6	6	6	6	6	6	6	6	6	6	4	4	4	4	4	
1938	1	24		4		4		4	4	6	4	2	2	2	2		2	4	4	4	4	4	4	4	4	4	4	4	4	4	4			
1939	3	6	6	6	6	6	4	6	6	6	6	4	5	4	6	6	6	6	6	6	4	6	5	6	6	6	6	4	6	6	6	6	6	
	4	6	6	4		6	6	6	6	6	4	6	6	6	6	8	4	6	6	6	6	6	6	4	6	4	6	4	6	6	6	4	/	
	9	6	6	6	4	6	6	6	6	6	6	4	6	6	6	6	6	6	6	6	6	6	6	6	5	5	6	6	6	6	6	6	6	/
	10	6	4	6	6	6	6	6	6	4	6	6	6	6	4	6	6	6		6	4	6	4	6	6	6	6	6	6	6	6	6	4	
	11	6	6	6	4	6	4	6	6	6	6	6	6	6	6	4	6	6	6	6	6	6	6	4	6	6	6	4	6	6	4	6	6	/
	12	4	6	6	4	6	6	6	4	6	6	4	6	4	4	6	6	6	4	6	6	6	6	6	6	6	6	4	4	4	4	4	4	
1940	1	20		4		4		6	4	6	6	6	6	6	6	4	6	6	6	6	6	6	6		6	6	6	6	6	6	4	6	6	
	2	6	6	6	4	6	6	6	6	6	6	6	4	6	6	6	6	6	6	6	6	6	6	6	6	6	6	4	4	4	6	6	/	
	7	4	6	6	6	6	6	6	4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4	6	4	6	4			4	
	8			1	5	4	4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4	6	6	6	6	6	6

실제로 원문이미지 제공 지면을 정리해 본 결과 『조선시보』는 1914년부터 1940년까지 일제시기 약 25년간 지속적으로 생산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시보』 원문 이미지 신문 제공 일자 및 제공 면수에 오류가 발견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1920년 4월 7일 원문이미지를 확인해보면 두 개의 1면과 4면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1면은 실제로는 1920년 4월 20일 1면의 원문이미지에 해당하며, 1920년 4월 20일 원문이미지에는 1면이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4면은 1920년 4월 17일 4면의 원문이미지로 1920년 4월 17일 원문이미지에 중복되어 지원되고 있다. 즉 <표>에서 1920년 4월 7일의 제공면수는 6면에서 4면으로, 4월 20일 제공면수는 3면에서 4면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오류가 더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은 아마도 『조선시보』가 오래되고 연월일이 한문으로 기록된 까닭에 생긴 해독상의 오류<sup>16)</sup>로 추정되며, 달력 체제를 감안해 볼 때 1921년 9월 31일이나 1933년 11월 31일자 원문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원본 자료 정리의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를 보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1933년 도판을 바탕으로 『조선시보』의 발행면수를 6면에서 4면으로 줄였다고 하였으나, 이미 1920년대부터 4면 중심으로 발행되었고 1930년대 후반에는 6면을 제공한 일수도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15년, 1923년, 1924년, 1926년, 1927년, 1928년, 1931년, 1932년, 1935년, 1936년, 1938년, 1940년의 각 1월 1일에 발행된 신문 지면은 최소 8면에서 최대 35면까지 제공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조선시보』의 발행면수는 석간 6면(1933년 이후 4면)이라는 기존의 내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해당 연도의 1월 1일 신문 지문 제공 면수가 유난히 많은 것은 날짜의 판독 오류로 인한 잘못인지 혹은 본래부터

16) 1920년 4월 7일 기사의 경우 발간일이 大正九年四月七日이나 두 번째 1면은 大正九年四月廿日, 두 번째 4면은 大正九年四月十七日이다. 廿日과 十七日 부분이 흐릿하여 七일로 잘못 판독한 듯하며, 이외에도 원문이미지의 제공일에 따른 오류가 다수 보인다.

해당일의 제공 지면이 많은 것인지, 또는 1월 1일 제공 지면수가 유난히 많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Ⅲ. 『조선시보』의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은 경성에 6종, 지방에 40여종이 있었다.<sup>17)</sup> 그러나 현재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경성일보』 『조선신문』 『조선시보』 『부산일보』 정도로 실제 발행된 것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 이들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발간된 일본어 신문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대부분이 『조선시보』를 제외한 3종의 신문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의 방향이 경성 중심의 문학, 문화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로 확인되는 4종의 일본어 신문 중에서 『조선시보』와 『부산일보』는 부산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 배포된 두 신문 자료 중 『부산일보』만 DB가 구축되어 있어<sup>18)</sup> 다양한 비교 분석이 힘들며, 자료에 오류가 있어도 보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박용규는 일제하의 지방신문 중에서 활용 가능한 거의 유일한 자료로 『부산일보』를 들고 있으나<sup>19)</sup>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부산일보』의 경우는 1914년 12월부터 1944년 2월까지의

17) 홍순권(2012)에 따르면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일찍부터 개항장을 비롯하여 조선의 각 도시에 진출하여 현지 신문을 발행하였는데 『경성일보』 등 서울에서 발행된 6종의 일간지를 제외하고도 1910년 이전 조선 각 지방에서 발행된 일본인 신문만도 총 40여 종에 이른다.

18) 주3) 참조.

19) 박용규, 앞의 논문, 40쪽.

발행 기간 중 1919년부터 1924년까지가 결호(缺号) 상태이다. 이에 반해 『조선시보』는 1914년 11월부터 1940년 8월까지 자료가 거의 제공되고 있어 『부산일보』에서 결호 상태인 6년 여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료이며<sup>20)</sup>, 『부산일보』와 중복된 시기의 기사 내용에 있어서 상호 보완은 물론 비교 연구가 가능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조선시보』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발행된 일본어신문이라는 점과 『부산일보』와 함께 부산지역에서 발간되었다는 소개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신문 원문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해제 내용만 비교해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산일보』<sup>21)</sup>에 대해서는

부산일보 자료는 일제 침략 시기 부산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釜山日報』으로 1914년 12월부터 1944년 3월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1907년 10월 창간되어 부산 지역의 일본인들이 발행한 신문으로 일제 시기에는 京城日報·朝鮮新聞과 더불어 3대 일본어 신문으로 불리던 자료이다. 일제 시기 재조일본인 사회 및 일제의 지배정책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자 부산을 비롯한 경남과 경북 일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상세하게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지역사 연구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와 같이 상당한 사료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조선시보』<sup>22)</sup>에 관해서는

20) 대표적으로 1914년 부산에서 열린 ‘경상남도물산공진회(慶尙南道物産共進會)’에 관한 기사를 들 수 있다. 경상남도물산공진회는 1914년 11월 1일부터 20일간 개최되었는데, 1914년 12월 원문부터 제공하고 있는 『부산일보』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1914년 11월 원문부터 제공하고 있는 『조선시보』에서는 그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1) [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npbs.html](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npbs.html)(검색일: 2017. 6. 6)

22) [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npjs.html](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npjs.html)(검색일: 2017. 6. 6)

조선시보는 일제 침략 시기 부산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朝鮮時報』 1914년 11월 2일 ~ 1940년 8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전산화한 것이다. 조선시보는 1892년 7월 11일 창간된 일본어 신문으로 부산에 본사를 둔 일간 신문이다. 창간 당시의 제호는 釜山商況으로 商況 보도를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東亞貿易新聞으로 제호를 바꾸었으나 경영난으로 잠시 휴간되었다가 1894년에 조선시보라는 이름으로 재창립되었다. 조선시보로 재창립될 당시에는 高木末熊이 사장을 맡았다.

와 같이 창간 일자 및 지역, 발행인 등 단편적인 사항만을 언급하고 있어 『조선시보』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 수정에 더하여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먼저 1914년 부산에서 열린 ‘경상남도물산공진회(慶尙南道物産共進會)’에 관한 기사를 들 수 있다. 『조선시보』에는 공진회 개최기간 동안의 다양한 정보(개회사, 회장별 위치 및 광경, 입장자 수, 수상자 명단, 부대 행사, 관련 사건 및 사고, 일기예보, 광고 등)를 담은 신문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경상남도물산공진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자료1>~<자료6>참조). 그리고 ‘공진회출품물심사보고(共進會出品物審査報告)’ 및 ‘공진회출품물별견기(共進會の出品物瞥見記)’라는 보고서 형식의 기사를 비롯하여 ‘조선의 수산업(朝鮮の水産業)’이라는 연재 기사가 실려 있고, 더불어 공진회 관련 부대행사로 ‘조선투우의 유래(朝鮮鬪牛の由來)’에 관한 기획기사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1914년 부산에서 개최된 경상남도물산공진회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면 1년 뒤인 1915년 총독부 주도로 경성에서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와의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제강점기 동안 개최된 공진회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sup>23)</sup>



<자료1> 1914년 11월 2일  
총독 축사



<자료2> 1914년 11월 2일 공진회  
축사 및 제1, 2공진회장 광경



<자료3> 1914년 11월 2일  
일기예보



<자료4> 1914년 11월 21일  
공진회 입장자 총수 기사 중 일부



<자료5> 1914년 11월 17일  
수상 광고



<자료6> 1914년 11월 22일 조선금  
후의 수산(朝鮮今後の水産) 연속 기사

23) 일제강점기에 개최된 공진회에 대한 연구는 1915년 경성에서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총독부가 주축이 되어 식민지 지배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식민통치의 미화에 목표를 두면서 시정 사업 선전에 역점을 둔 행사였다.

또한 『조선시보』는 종합상업지로서 다른 일본어 신문에 비해 광고란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다. <자료7>의 광고 기사와 같이 은행(百三十三銀行)과 지점명(釜山支店), 전화번호(五十八番、百五十八番) 등의 정보와 함께 설립연도, 자본금, 지배인명, 외환거래처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분석을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 상업 경제의 흐름과 문화적인 지배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원, 보험, 소송, 특허, 다양한 생활용품(다다미, 금속스틸셔터, 칫솔, 수세미, 화장품 등)과 식료품(포도주, 설탕 등), 구인/구직 등의 광고 연구를 통해서는 근대 초기 부산 거주 한국인과 일본 거주민들의 생활상과 더불어 식민지기 근대 신문물 유입의 흐름 및 일제에 의한 경제 수탈 전략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백삼십은행의 자본금 및 환전소 위치 안내 광고



병원광고



잡화물 광고



인력 주선 광고

<자료7> 1914년 11월 28일 상업 광고 중 일부



뿐만 아니라 『조선시보』는 일제강점기 동아시아를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 역시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1914년 ‘칭다오함락(靑島陷落)’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靑島)를 일본군이 1914년 11월 7일 함락하였는데, 종전 당일인 1914년 11월 7일에 이미 『조선시보』에는 칭다오함락(靑島陷落)과 관련한 제등행사 및 모임을 알리는 기사가 보인다(<자료8>참조). 다음날인 1914년 11월 8일 『조선시보』에는 [도쿄지급전보(東京至急電報)]로서 [칭다오함락(靑島陷落)]에 관한 기사를 다시 제공하고 있는데(<자료8-1>참조), 이를 통해 『조선시보』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시보』에 실린 한, 일 양국 정치인의 동향이나 전쟁 상황을 통해 일제에 의한 식민지 침략전략을 엿볼 수도 있다.



<자료8> 1914년 11월 7일

<자료8-1> 1915년11월 8일

(좌)칭도함락과 제등행사 (우)칭도함락 축하모임

동경지급전보-칭도함락

이외에도 부산을 중심으로 한 쌀과 잡곡, 수산(어종 및 어획량), 해운, 냉장, 설탕, 비료 등의 상황(商況)을 시리즈로 기획하여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어 『조선시보』를 통해 다분야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조선시보』는 일제강점기 부산 지역에서 발행된 상업지(商業誌)로, 일제강점기 부산권의 지역연구는 물론 경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틀을 지방으로 확장시켜 총체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 IV. 맺음말

조선에서 일본인이 경영한 신문의 역사는 1881년 부산의 『조선신보』에서 시작되어 1945년 10월 31일 『경성일보』에서 끝났다<sup>24)</sup>. 이 기간 중에 발간된 많은 일본어 신문 중 현재 『경성일보』 『조선신문』 『조선시보』 『부산일보』가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시보』를 제외한 다른 3종의 신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 성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보』는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다른 신문보다 창간 시기가 빨라 『부산일보』를 비롯한 동시대의 여러 신문과 미디어에 영향을 끼치며 일본어 신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일본에도 배포되어 부산을 일본에 알리는 등 여론 조성과 식민지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보』는 일제강점기 지방 신문 자료로서 일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발행되기는 하였으나, 조선인 직원이나 독자가 적지 않았기에 조선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상당하였다. 또한, 신문 발행의 주체였던 재조선 일본인 사회의 특성과 조선인들에게 제공된 경제 활동을 파악할 수 있고, 당시 지방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기록 자료로 25년간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시보』가 가지는 자료적 가치와 학술적 의의는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선시보』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문이미지 제공 일자 및 제공 면

24) 李相哲, 앞의 책, 6쪽.

수 오류에 대한 수정 작업과 더불어 기사 목록화 사업, 한국어 기사 해석문 제공 등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조선시보』는 경성에서 발행된 신문 자료와 부산에서 발행된 신문 자료의 대조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부산에서 발행된 신문끼리의 비교 연구를 통해 동일권역의 지역성 연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록 자료이다. 즉 『조선시보』는 부산 지역에서 발행된 종합 상업지로서 부산의 지역학적 연구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제강점기 연구의 틀을 지방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자료로서 차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 1. 저서 및 논문

김태현, 『광복 이전 일본인 경영 신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용규, 『일제하 지방신문의 현실과 역할』, 『韓國言論學報』 50-6호, 2006.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채 백, 『朝鮮新報에 관한 一研究』, 『신문학보』 26, 1991.

\_\_\_\_\_, 『부산언론사 연구』, 산지니, 2012.

홍순권, 『일제강점기 신문사 연구의 현상과 향후의 과제』, 『석당논총』 52, 2012.

李相哲, 『朝鮮における日本人經營新聞の歴史』, 角川學芸出版, 2009.

### 2. 기타 자료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1910. 8. 6.) 『朝鮮總督府官報』(1919. 4. 17.)

『경성신보』(1911. 6. 2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